

『小兒藥證直訣』 傳本에 대한 小考

白裕相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Notion of descended reference about 『Soayakjeungjikgyeol(小兒藥證直訣)』

Baik Yousang

The four precious results are heard below after thorough study of Jeoneul(錢乙)'s descended piece and main citation reference from Song(宋) era.

1. Jeoneul(錢乙)'s historical period seems that he finished his life in the age of 82, from Cheonseong(天聖) 10years(Year 1032) to Jeonghwa(政和) 3years(Year 1113) in North Song(北宋) era. However, it also seems that his life terminated Seonhwa(宣和)元年 in 1119. The title of 『Soayakjeungjikgyeol(小兒藥證直訣)』 was reflected in 『Sagojeonso(四庫全書)』 as 『Soayakjeungjikgyeol(小兒藥證直訣)』, however according to various of previous descended references and citations indicate that 『Soayakjeungjikgyeol(小兒藥證直訣)』 is more appropriate than 『Soayakjeungjikgyeol(小兒藥證直訣)』. Furthermore, the name, Yeomhyochung(閻孝忠), who edited the reference 『Soayakjeungjikgyeol(小兒藥證直訣)』 was appeared as Yeomgyechung(閻孝忠) in many different old references. Thus, even though, Sagogoan(四庫館) and Juhakhae(周學海) looked as Yeomgyechung(閻孝忠), but it seems Yeomhyochung(閻孝忠) in 『Songsa(宋史) · Yemunji(藝文志)』 is more authentic than others.

2. When first edition of 『Soayakjeungjikgyeol(小兒藥證直訣)』 was published, Yeomhyochung(閻孝忠)'s the first book of 『Yeomssisoabangnon(閻氏小兒方論)』 and the first chapter of Yugi(劉跂)'s 『Jeonjungyangjeon(錢仲陽傳)』 were attached in one book. Not long after of the first edition, Donggeup(董汲)'s first book of 『Soabanjinbigeupbangnon(小兒斑疹備急方論)』 and Jeoneul(錢乙)'s additional attachment was added in prescription reference. Among these references which were published in Song era, the original copy which Jinsegeol(陳世傑) published in Chung era in

Ganghi(康熙) 58years (Year 1719) was remained and the first edition that Yangsugyeong(楊守敬) collected in Japan was published in 『Ibonbangseoji(日本訪書志)』 called Seonhwabon(宣和本).

3. Ungjonglip(熊宗立)'s 『LyujeungjuseokJeonssisoabanggyeol(類證注釋錢氏小兒方訣)』, Seolgi(薛己)'s 『Gyojeongjeonssisoayakjeungjikygyeol(校正錢氏小兒藥證直訣)』 Muyeongjeon-Chuijinbon(武英殿聚珍本) were followed Yangsugyeong(楊守敬)'s called Seonhwabon(宣和本) theory, in addition Yubang(劉昉)'s 『Yuyusinseo(幼幼新書)』 and 『Soayakjeungjikygyeol(小兒藥證直訣)』 quoted from Chosun 『Euibangyuchui(醫方類聚)』 also followed Yangsugyeong(楊守敬)'s called Seonhwabon(宣和本) theory. On the other hand, Jinsegeol(陳世傑)'s Gisudangbon(起秀堂本) and reprinted Juhakhaebon(周學海本) belong to parts of Songbokganbon(宋復刊本).

4. In major references and citation materials descended from 『Soayakjeungjikygyeol(小兒藥證直訣)』, Yubang(劉昉)'s 『Yuyusinseo(幼幼新書)』 and 『Soauisaengchongaminonbang(小兒衛生總微論方)』 were cited in Song era and some related parts in 『Yeongnakdaejeon(永樂大典)』, 『Soayakjeungjikygyeol(小兒藥證直訣)』 related sections, Ungjonglip(熊宗立)'s reedited and annotated part of 『Lyujeungjuseokjeonssisoabanggyeol(類證注釋錢氏小兒方訣)』, Seolgi(薛己)'s proof reading and annotated 『Gyojeongjeonssisoayakjeungjikygyeol(校注錢氏小兒藥證直訣)』, 『Euibangyuchui(醫方類聚)』's quotation. In Chung(淸)era, Jinsegeol(陳世傑)'s re-published reference, Gisudangbon(起秀堂本), which was simply printed in Song and proof read and republished Juhakhaebon(周學海本), Muyeongjeonchuijinbon(武英殿聚珍本) compiled from 『Yeongnakdaejeon(永樂大典)』, Yangsugyeong(楊守敬)'s 『Jeonssisoayakjeungjikygyeol(錢氏小兒藥證直訣)』 mentioned in 『Ibonbangseoji(日本訪書志)』, Jangsui(張壽頤)'s annotation, 『Soayakjeungjikygyeoljeonjeong(小兒藥證直訣箋正)』 and Simgeumo(沈金鰲)'s 『Yuguaeokmi(幼科釋謎)』 which was applied Jeoneul(錢乙)'s theory and prescription

I. 序論

宋代 錢乙이 지은 『小兒藥證直訣』은 臨床 發展의 역사상 金元四大家가 나오기 이전의 비교적 초기에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兒科의 專門性과 漢의학의 整體性을 모두 갖추고 있는 매우 중요한 著作이다. 宋代 이후 수많은 종류와 형식의 醫書들이 유행하여 편집 간행되는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小兒藥證直訣』이 꾸준히 校正, 注釋, 重刻되어 내려왔던 것은 바로 그러한 가치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여러 학자들의 考證을 통하여 錢乙의 著作이 어떠한 내용과 형태의 변화를 거치면서 전해지게 되었는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본 小考의 목적이다. 이후 아직 손길이 닿지 않은 많은 善本들에 대한 精校 및 譯釋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小兒藥證直訣』 傳本에 관한 여러 자료와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II. 本論

1. 『小兒藥證直訣』의 初刊

『小兒藥證直訣』은 北宋의 醫家인 錢乙이 저술하고 錢乙 친구의 아들인 閻孝忠¹⁾이 편집하여 論證, 醫案, 處方 등 三卷으로 만든 책으로 알려져 있다²⁾. 錢乙에 대한 傳記는 『宋史·錢乙傳』과 劉跂가撰한 「錢仲陽傳」이 현존하고 있다³⁾. 錢乙의 선조는 浙江 錢塘에서 살았으며 五代十國⁴⁾의 하나인 吳越國을 세운 錢鏐(852-932년)와 가까운 宗親 관계였다. 北宋 太平興國⁵⁾3년(978년)에 錢鏐의 손자인 錢俶이 종족을 이끌고 올라와 宋에 복속하고 鄆州⁶⁾에 자리잡음으로써 吳越國은 없어지고 宋의 趙匡胤이 중국을 통일하게 된다. 이 때에 錢乙의 증조부인 錢贊이 錢俶을 쫓아 北上하여 鄆州에 살게 되었다⁷⁾. 錢乙의 아버지 錢顥⁸⁾은 鍼術에 능하였고 錢乙을 성장기에 키워준 呂氏도 醫業에 종사하였다고 하니, 錢乙이 의학 공부에 있어서 일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1) 錢乙의 生沒年代

劉跂의 「錢仲陽傳」에는 錢乙의 生卒年月이 없고 단지 “享年八十二, 終於家.”라고만 되어 있는데, 일설에는 北宋 仁宗 天聖⁹⁾10년(1032년)에 태어나서 徽宗 政和¹⁰⁾3년(1113년)에 82세의 나이로 生을 마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陳振孫의 『直齋書錄解題』¹¹⁾卷十三에는 “錢氏小兒藥證眞訣三卷, 太醫丞東平錢乙仲陽撰, 宣教郎大梁閻季忠集. 上卷言證, 中卷叙嘗所治病, 下卷爲方. 季忠亦頗附以己說,

1) 『幼幼新書』에서 “保生信效, 閻孝忠編. 孝忠字資欽, 許昌人.”이라 하여 閻孝忠의 字는 資欽이고 許昌 사람이라 하였다. 『小兒藥證直訣』을 편집하고 『保生信效方』을 지었다.

2) 劉跂의 「錢仲陽傳」에는 錢乙이 『小兒藥證直訣』 외에 『傷寒論指微』 五卷과 『嬰幼論』 百篇을 지었다고 하였다.

3) 劉跂의 「錢仲陽傳」은 『小兒藥證直訣』에 附加되어 있으며 劉跂가 지은 『學易集』 卷七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宋史·錢乙傳』의 藍本으로 보고 있다. 『學易集』 十二卷은 『四庫全書』 편찬시 『永樂大典』 속에서 모아 輯刊하였다.

4) 唐이 멸망한 907년부터 960년에 나라를 세운 宋이 중국을 통일하게 되는 979년까지 약 70년 동안 흥망한 여러 나라를 말한다. 화북지방을 중심으로 한 정통왕조인 梁, 唐, 晉, 漢, 周가 五代이며 十國은 吳, 南唐, 吳越, 閩, 荊南, 楚, 南漢, 前蜀, 後蜀, 北漢을 말한다.

5) 宋 太宗 太平興國年間(976-983)을 말한다.

6) 지금의 山東省 東平縣에 해당한다.

7) 閻孝忠의 序文에는 錢乙이 汶上人으로 되어 있는데 汶上은 지금의 山東省 汶上縣으로 당시에는 東平陸縣에 포함되어 있었다.

8) 『宋史·錢乙傳』에는 이름이 顥으로 되어 있다.

9) 宋 仁宗 天聖年間(1023-1031)을 말한다.

10) 宋 徽宗 政和年間(1111-1117)을 말한다.

11) 13세기 중반 宋의 直齋 陳振孫이 편찬한 書目解題로서 총 二十二卷이며 經史子集 四部 五十三類로 분류되어 있다. 直齋는 자신이 지방관으로 부임한 곳에서 5만권 이상의 책을 필사, 수집하여 분류하고 짧은 설명을 달았는데 宋代까지의 많은 문헌을 고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清代에 『永樂大典』 중에서 발견되어 輯錄되었다.

且以劉斯立所作仲陽傳附於末, 宣和元年也.”라 하여 『小兒藥證直訣』이 徽宗 宣和¹²⁾元年(1119년)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閻孝忠의 序文에서 “大觀¹³⁾初余筮仕¹⁴⁾汝海, 而仲陽老矣, 於親舊間, 始得說證數十條, 後六年, 又得雜方, 蓋晚年所得, 益妙. 比於京師, 復見別本, 然旋著旋傳, 皆雜亂, 初無紀律, 互有得失, 因得參校焉.”라 하여 錢乙로부터 처음 說證數十條를 얻은 것이 『小兒藥證直訣』을 편집하여 완성한 때로부터 6년을 거슬러 올라가므로 1113년에 錢乙이 생을 마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閻孝忠이 단지 ‘老’라고만 하였으므로 이 설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 또한 一說에는 宣和元年으로 보는데, 閻序에서 ‘老’라 한 것을 『說文·老部』에서 “七十爲老”라 한 것에 근거하고 大觀初를 大觀元年(1107년)으로 보아서 82세가 되는 宣和元年에 錢乙이卒했다는 추정이다¹⁵⁾. 『惜陰軒叢書』에서 劉跂의 「錢仲陽傳」을 실고서 마지막에 “宣和元年劉跂傳”라 한 것을 보면 錢乙의 사망과 같은 해에 錢乙傳이 씌여지고 『小兒藥證直訣』도 함께 刊行되었다는 것인데 앞으로 더 자세한 考證이 필요한 부분이다.

2) 『小兒藥證直訣』과 閻孝忠의 名稱

閻孝忠은 錢乙의 친구이자 須城縣尉¹⁶⁾를 지낸 閻某氏의 아들로서 序文에 의하면 어려서 錢乙의 도움으로 위험한 병에서 벗어난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한다¹⁷⁾. 閻孝忠은 錢乙의 論證, 醫案, 處方을 모아서 각각 上中下 三卷으로 편집하고 여기에 자신의 小兒方論과 劉跂의 「錢仲陽傳」을 함하여 宣和元年(1119년)에 『小兒藥證直訣』을 初刊하게 된다. 이 本의 이름이 『小兒藥證眞訣』로 되어 있는 문헌이 있는데, 앞서 陳振孫의 『直齋書錄解題』 卷十三에서 “『錢氏小兒藥證眞訣』三卷”이라 하였으며 清代 四庫館에서 『永樂大典』 중에서 集錄한 聚珍本에서도 『錢氏小兒藥證眞訣』이라 하였다. 그러나, 『宋史·藝文志』에서는 “『小兒藥證直訣』”이라 하였고, 清初 陳世傑의 起秀堂本에도 ‘直訣’로 되어 있으며 이를 다시 復刻한 清末 周學海本도 이를 따르고 있다¹⁸⁾. 聚珍本은 板本의 계통상 楊守敬의 『日本訪書志』 卷10에 실려있는 『錢氏小兒藥證直訣』三卷의 宋本을 따르고 있는데, 여기에 ‘直訣’로 되어 있으므로 아마도 明代 『永樂大典』을 만드는 과정에서 ‘直’이 ‘眞’으로 잘못 옮겨졌거나 또는 당시에 『直齋書錄解題』 등을 참고하여 考證學者들이 바꾼 것일 수도 있다. 현재는 『小兒藥證直訣』

12) 宋 徽宗 宣和年間(1119-1125)을 말한다.

13) 宋 徽宗 大觀年間(1107-1110)을 말한다.

14) 筮仕 : 원래는 옛날에 官職을 만들어 사람을 임명하기 전에 점을 쳐서吉凶을 미리 알아보는 것을 가리켰는데 후에 의미가 넓어져 官職에 처음 들어가는 것을 말하게 되었다.

15) 錢乙著, 閻孝忠編集, 張燦理, 郭君雙點校 : 小兒藥證直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140

16) 지금의 山東省 東平縣 부근이다.

17) 閻序에서 “先子治平中登第, 調須城尉識之, 余五六歲時, 病驚疳癰瘕, 屢至危殆, 皆仲陽拯之, 良愈.”라 하였다.

18) 단, 周學海는 聚珍本을 보고서 ‘眞訣’이 맞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序文에서 “是書原刻閻名作孝忠, 眞訣作直訣, 今未敢易也.”라 하여 감히 수정하지 않았다고만 하였다.

로 부르는 것이 정설이다. 板本の 문제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여러 문헌에 기록된 『小兒藥證直訣』의 名稱과 卷數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宋史·藝文志』에서 “『錢乙小兒藥證直訣』八卷”이라 하였고, 宋 晁公武의 『郡齋讀書志·醫書類』에서도 “『錢氏小兒方』八卷”이라 하였으며, 鄭樵의 『通志·藝文七·醫方類』¹⁹⁾에서도 “『錢乙小兒方』八卷”이라 하여²⁰⁾ 모두 八卷으로 보고 있다. 陳振孫의 『直齋書錄解題·醫書類』에서는 지금의 傳本과 같이 三卷이라 하였고, 馬端臨²¹⁾의 『文獻通考·經籍考五十·醫家』²²⁾에서는 두 가지 기록을 모두 실고 있다. 가정하면 원래 두 종류의 책이 따로 만들어져 전해졌거나, 錢乙의 祖本과 그것을 정리한 閻孝忠의 정리본이 있었거나, 閻孝忠의 정리 과정에서 抄本이 흩어져서 전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閻孝忠의 序文을 살펴보면 “比於京師, 復見別本, 然旋著旋傳, 皆雜亂, 初無紀律, 互有得失, 因得參校焉.”이라 하여 이미 錢乙의 別本이 世間에 유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것을 “其先後則次之, 重複則削之, 訛謬則正之, 俚語則易之.”하여 三卷으로 만들었다고 하였으므로 원래는 이보다 분량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錢乙小兒方』八卷은 錢乙이 일찍이 스스로 지은 책이고 『小兒藥證直訣』은 閻孝忠이 그것을 底本으로 하여 정리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八卷本은 三卷本을 傳寫하는 과정에서 分卷한 책으로 볼 수도 있다.

閻孝忠의 이름에 대해서는, 晁公武의 『郡齋讀書志·醫書類』卷二²³⁾에서 “錢氏小兒方八卷. 右皇朝錢乙仲陽撰. 神宗時擢太醫丞, 於書無所不窺, 它人斬斬守古, 獨度越縱舍, 卒與法合, 尤邃本草, 多識物理, 辨正闕誤, 最工療嬰孺病, 年八十二而終. 閻季忠方附於後.”라 하였고²⁴⁾, 陳振孫의 『直齋書錄解題』에서도 “『錢氏小兒藥證真訣』三卷, 太醫丞東平錢乙仲陽撰, 宣教郎大梁閻季忠集.”이라 하여 모두 閻季忠이라 하였다. 그리고 元 馬端臨의 『文獻通考』에서도 역시 ‘閻季忠’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清代에 起秀堂本을 근거로 影印한 本에는 모두 ‘孝’로 되어 있으며 다른 계통인 楊守敬의 宣和本과 聚珍本의 경우도 ‘孝’로 되어 있다²⁵⁾. 또한 小兒治療에 능했던 閻孝忠의 다른 저서인 『保生信效方』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南宋 劉昉의 『幼幼新書』卷四十 近世方書第十四에서 “『保生信效』閻孝忠編. 孝忠字資欽, 許昌人.”이라 하였고, 『宋史·藝文志』에서는 “閻孝忠『重廣保生信效方』一卷”이라 하였으며, 李時珍의 『本草綱目·引據古今醫家書目』에는 “閻孝忠『集效方』”이라 하여 모두 ‘孝忠’로 되어 있다. 특히 宋代의 『小兒衛生總微論方』卷三 「諸身熱論」 부분에, 『小兒藥證直訣』中 『閻氏小兒

19) 南宋 1161년에 鄭樵(1104~1162)가 편찬한 紀傳體 역사서로 총 200권이다.

20) 宋 尤袤의 『遂初堂書目·醫書類』에서도 『錢乙小兒方』라 하였고 卷數는 말하지 않았다.

21) 馬端臨(1254-?)은 字가 貴與이고 號는 竹洲, 饒州 樂平(지금의 江西省 樂平)사람이다.

22) 宋末, 元初의 학자 馬端臨이 지은 制度와 文物史에 관한 저서. 총 348권으로 20년에 걸쳐 완성하여 1319년에 간행하였다.

23) 宋 紹興21년(1151년)에 晁公武가 엮은 書志이다. 晁公武가 四川省에 관리로 있을 때 轉運使 井度가 기증한 책들을 經史子集 四部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24) 劉昉의 「錢仲陽傳」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25) 「四庫全書目錄提要」를 보면, “閻季忠, 『永樂大典』作閻孝忠, 然『書錄解題』及『通考』皆作季忠, 疑『永樂大典』爲傳寫之訛, 今改從諸家, 作季.”라 하여 聚珍本에는 원래 閻孝忠으로 적혀있다고 하였다.

方』의 「治小兒瘡疹傷食相似」에 수록된 내용이 인용되어 있는데 이것을 「閻孝忠論」이라 하였다. 이상을 살펴보면 「閻孝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단, 『幼幼新書』에서 “孝忠字資欽, 許昌人.”이라 하고, 周學海本 『小兒藥證直訣』 閻氏 序文에서는 “宣教郎大梁閻季忠序”²⁶⁾라 하여 사는 지역이 약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²⁷⁾. 晁公武, 陳振孫, 馬端臨 등의 考證學者들이 閻季忠이라는 또 다른 인물을 『小兒藥證直訣』의 편집자로 보았을 수도 있으나 현재는 여러 정황들로 보아 ‘閻孝忠’이 잘못 옮겨져 전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정설이다.

3) 『小兒藥證直訣』 初刊本과 宋復刊本の 구성

北宋 1119년에 『小兒藥證直訣』이 간행될 때 閻孝忠이 자신이 지은 『閻氏小兒方論』一卷을 뒤에 붙여놓았고 이 뒤에 다시 劉跂의 「錢仲陽傳」一篇을 붙여놓았다²⁸⁾. 劉跂에 대해서는 『四庫全書目錄提要』에서 “劉跂, 字斯立東平人, 摯之子也, 有學易集別著錄. 所撰乙傳, 與宋史方技傳略同, 蓋宋史即據此傳爲藍本云.”이라 적고 있다. 이 「錢仲陽傳」의 내용이 『宋史·錢乙傳』보다 자세하여 그것의 藍本으로 보고 있다.

初刊本 이후에 『小兒藥證直訣』이 다시 간행되었는데 『閻氏小兒方論』 뒤에 錢乙과 동시대의 醫家인 董汲²⁹⁾의 『小兒斑疹備急方論』一卷을 붙여 놓았고, 이 方論 마지막에는 哲宗 元祐³⁰⁾8년(1093년)에 錢乙이 써준 後序가 포함되어 있다. 孫準平이 쓴 「董氏小兒斑疹備急方論序」를 보면 “吾友董及之, 少舉進士不第, 急於養親, 一日盡棄其學, 而從事於醫.”이라 하여 원래 儒生이었는데 進士에 합격하지 못하고 부모를 봉양하는데 급해져서, 儒學을 그만두고 醫業에 종사하게 되었다고 한다. 錢乙은 後序에서 “比得告歸里中, 廣川³¹⁾及之, 出方一帙示予, 予開卷而驚嘆曰‘是予平昔之所究心者, 而子乃不言傳而得之.’ 予深嘉及之少年藝術之精, 而又愜素所願以授人者, 於是輒書卷尾焉.”이라 하여 董及之의 方論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2. 『小兒藥證直訣』의 傳本

26) 周學海는 四庫館에서 『永樂大典』 聚珍本の 閻氏序에서 ‘孝忠’을 ‘季忠’으로 고쳤던 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27) 許昌은 지금의 河南 許昌 부근이고 大梁은 지금의 河南 開封 부근으로 조금 차이가 있다.

28) 陳振孫의 『直齋書錄解題』에서 “季忠亦頗附以己說, 且以劉斯立所作仲陽傳附於末, 宣和元年也.”라 하였다.

29) 北宋의 醫家로 字가 及之이고 東平(지금의 山東省 東平) 사람이다. 斑疹의 치료에 있어 寒涼한 약의 응용을 잘 하였고, 溫熱한 약을 함부로 응용하는 것을 반대하여 후대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또한 『內經』 이래 本草書와 方書 중 脚氣病과 관련된 것을 수집하여 『脚氣治法總要』二卷을 편찬하였다. 그밖에 『施舍備要』一卷이 있다.

30) 宋 哲宗 元祐年間(1086-1094)을 말한다.

31) 廣川은 옛날의 廣川國으로 지금의 河北省 冀縣, 景縣, 深縣 일대를 말한다.

1) 『小兒藥證直訣』 宋本

『小兒藥證直訣』의 宋本에는 北宋 때의 初刊本과 宋復刊本이 있는데 이중 初刊本을 宣和元年(1119년)에 간행되었기 때문에 특히 宣和本이라 부른다. 이들 宋本은 모두 清代에 이르러서야 원형을 갖춘 채로 발견된다. 康熙58년(1719년)에 陳世傑이 影刻한 起秀堂本이 바로 『董氏小兒斑疹備急方論』을 포함하고 있는 宋復刊本이며³²⁾, 한참 후인 1880년대 楊守敬이 『日本訪書志』 卷十에 실어 놓은 『錢氏小兒藥證直訣』 三卷을 宣和本으로 보고 있다. 張燦理, 郭君雙 등이 點校하여 1991년에 간행한 『小兒藥證直訣』³³⁾이 이 중 起秀堂本을 底本으로 하고 있다. 이 起秀堂本은 清末 光緒17년(1891년)에 周學海가 校勘하고 復刻하여 『周氏醫學叢書』에 포함시켰는데 이것을 周學海本이라 한다. 周學海本은 1955년 人民衛生出版社에서 影印하였으며, 趙安民, 鄧少偉 등이 注釋하여 1998년에 간행한 『小兒藥證直訣』³⁴⁾이 이 周學海本을 底本으로 하고 있다.

楊守敬은 『日本訪書志』의 『錢氏小兒藥證直訣』 三卷을 陳世傑의 起秀堂照宋本重刻本과 비교 교정한 후에 “上卷은 그다지 내용의 심한 出入이 없고, 中卷은 陳本에서 駙馬子病目 한 條가 빠져 있으면서 陸親宮中十大王 한 條가 더 나오며, 下卷은 차이가 많다.”고 하였고, 또한 “宋 劉昉의 『幼幼新書』가 이 책을 인용한 것이 열에 일곱, 여덟이고, 『醫方類聚』는 전부 싣고 있다. 지금 이 책으로 교감하여 일일이 들어 맞으니 이 책이 宣和本임에 의심이 없다.”고 하여³⁵⁾ 이 책이 所謂宣和本이며 起秀堂本과 차이가 많다고 하였다. 이 所謂宣和本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세하고 정확한 考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起秀堂本은 宋代 復刊時에 간행한 내용에서 閻孝忠의 序文이 빠져 있다. 淸 張鈞衡의 『適園藏書志』 卷六에 『錢氏小兒藥證直訣』 三卷과 『董氏小兒斑疹備急方論』이 실려있는데 여기에는 閻孝忠의 序가 온전하게 보존된 상태를 가지고 책머리에 위치한 「錢仲陽傳」의 앞에 위치하고 있다. 張鈞衡은 이 책에 대하여 “陳世傑이 일찍이 이 책으로 重刻하다가 閻氏의 序를 잃어버렸는데 일찍이 陳刻本과 서로 비교해보니 陳刻本이 곧 이 책에서 나온 것임을 알았다.”고 하여 起秀堂本이 이 宋復刊本에서 나온 것이라 하였다. 起秀堂本에서 빠진 閻氏序는 周學海가 校勘할 때 武英殿聚珍本을 참고하여 다시 補入하였다.

32) 陳世傑이 影刻한 宋本을 趙安民, 鄧少偉 등은 南宋本으로 보고 있으며(趙安民, 鄧少偉注釋：小兒藥證直訣.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8, p.257), 張燦理, 郭君雙 등은 北宋本으로 보고 있다(張燦理, 郭君雙點校：小兒藥證直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143). 『小兒藥證直訣』의 初刊이 徽宗 宣和元年인 1119년에 刊行되었고, 靖康의 變이 일어나 남쪽으로 왕조를 옮겨 南宋이 시작되는 때가 1127년이므로 復刊本이 北宋末부터 南宋初까지 기간에 간행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정확한 復刊의 때를 알 수 없으므로 여기서는 宋復刊本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33) 張燦理, 郭君雙點校：小兒藥證直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34) 趙安民, 鄧少偉注釋：小兒藥證直訣.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8

35) 張燦理, 郭君雙點校：上揭書. p.142

현재 楊守敬의 所謂宣和本 체계를 따르고 있는 것은 明 正統5년(1440년)에 刊行된 熊宗立의 『類證注釋錢氏小兒方訣』, 明 萬曆年間(1573-1619)에 刊行된 薛己의 『薛氏醫案』 中 『校正錢氏小兒藥證直訣』, 武英殿의 『聚珍板叢書』에서 모은 『小兒藥證直訣』 聚珍本, 惜陰軒에서 重刻한 武英殿聚珍本, 『叢書集成』에 수집된 武英殿聚珍本 등이 있고, 南宋 紹興20년(1150년)에 刊行된 劉昉의 『幼幼新書』와 朝鮮 世宗27년(1445년)에 刊行된 『醫方類聚』에서 『小兒藥證直訣』을 인용한 부분도 이를 따르고 있다. 반면에 陳世傑의 起秀堂本, 이를 따른 周學海本, 張驥의 『小兒藥證直訣注』, 蘭陵堂에서 校刊한 醫書三種本, 民國間에 黃崗蕭氏가 간행한 『小兒藥證直訣』本 등이, 張鈞衡의 『適園藏書志』에 실려 있는 宋復刊本 계열에 해당한다³⁶⁾. 이 중 周學海本은 武英殿聚珍本을 가지고 校勘하였으므로 楊守敬의 所謂宣和本 계열을 참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小兒藥證直訣』의 初刊 후 傳本 및 주요 引用書

1119년 『小兒藥證直訣』이 처음 刊行되고 나서 약 30년 후인 南宋 紹興20년(1150년)에 劉昉³⁷⁾이 『幼幼新書』를 편찬하였는데 여기에 『小兒藥證直訣』의 내용이 많이 인용되어 있다. 『幼幼新書』는 小兒科 종합의서로서 모두 40卷 667門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 五臟主病等 錢乙의 論과 여러 처방들이 포함되어 있고 卷四十의 「近世方書第十四」에는 閻孝忠에 대한 기록을 적고 있다. 『小兒藥證直訣』의 初刊과 연대 차이가 많지 않으므로 宋本을 校正하는데 중요한 자료의 하나이다. 실제로 張燦理, 郭君雙가 『小兒藥證直訣』을 1991년에 點校할 때 『幼幼新書』明抄本을 참고하였다.

또한 南宋 嘉定年間(1208-1224)에 太醫局에서 刊行한 『小兒衛生總微論方』에 錢乙과 閻孝忠의 論 및 처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小兒衛生總微論方』은 총 二十卷으로 刊行 당시에 이미 作者 未詳이었는데 嘉定9년(1216년)에 씌여진 何大任의 序文에서 “余先君有『小兒衛生總微論方』二十卷, 家藏甚久, 今六十餘載, 不知作者爲誰.”라 하였으므로 대략 1150년에서 1160년 사이에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³⁸⁾. 總論 및 각 疾病에 대한 설명과 處方이 기재되어 있는데 『幼幼新書』와 마찬가지로 錢乙과 閻孝忠의 論 및 處方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어 『小兒藥證直訣』 宋本을 보았음을 알 수 있다³⁹⁾.

明 永樂5년(1407년)에 만들어진 『永樂大典』 속에 『小兒藥證直訣』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36) 張燦理, 郭君雙點校: 上揭書. p.143

37) 劉昉은 北宋末-南宋初의 關元으로 字는 方明이며 潮陽(지금의 廣東省 潮陽)사람이다. 평소 方書를 좋아하였는데 특히 幼科에 관심이 많아 古方 및 經驗方을 모아 王歷, 王湜 등과 함께 『幼幼新書』를 정리 편찬하였다.

38) 『小兒衛生總微論方』은 明 弘治2년(1489년)에 『保幼大全』으로 改名되어 刊行되었고 明 萬曆14년(1586년)에 徐桓이 重刊하였으며 현재 蕭氏蘭陵堂刻本, 四庫全書本 등이 남아있다.

39) 예를 들어, 『小兒衛生總微論方』卷三 諸身熱論에 「閻孝忠論」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小兒藥證直訣』의 『閻氏小兒方』에 들어 있는 「治小兒瘡疹傷食相似」를 인용한 것이다. 또한, 卷二 「五臟主病論」중 諸形證候에는 ‘錢乙死證’이 포함되어 있다.

清 乾隆年間(1736-1795)에 『四庫全書』를 편찬할 때 이를 모아서 『小兒藥證直訣』 武英殿聚珍本을 만들었다⁴⁰. 「四庫全書目錄提要」에서 “明以來舊本久佚, 惟雜見諸家醫書中, 今從永樂大全內, 掇拾排纂, 得論證四十七條, 醫案二十三條, 方一百一十有四, 各以類編, 仍爲三卷. 又得閻季忠序一篇, 劉跂所作錢仲陽傳一篇, 並冠簡端, 條理秩然, 幾還其舊, 疑當時全部收入, 故無大佚脫也.”라 하여 論證, 醫案, 處方 등을 모은 이외에 따로 閻孝忠序와 劉跂의 錢仲陽傳을 얻었고 董汲의 『小兒斑疹備急方論』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것은 聚珍本이 初刊本인 所謂宣和本의 계열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聚珍本은 清末에 周學海가 起秀堂本을 校正할 때 참고하였는데, 『永樂大典』에서 輯錄할 당시 聚珍本 중에 閻氏의 說이 錢乙의 著作 속으로 잘못 들어간 것이 많음을 밝혀내었다. 『永樂大典』은 1403년에 만들어진 『文獻大成』의 규모를 늘려서 다시 편찬한 類書로서 본문은 2만 2877권이고 目錄만도 60권이나 되었다. 완성 당시에 寫本으로 正本과 副本 각 一本씩을 만들었는데 正本은 明朝가 망할 때 소실되었고 副本이 『四庫全書』 편찬 때에 사용되었다. 이후 清末 영국과 프랑스의 침공으로 약탈, 소실되어 현재는 도합 797권만이 남아있다. 이 현존하는 『永樂大典』의 第一冊, 第九冊 중에는 『小兒藥證直訣』의 내용이 산재되어 있는데⁴¹ 다른 『小兒藥證直訣』 본에 빠져있는 내용이 일부 있어서 張燦瑀, 郭君雙가 1991년에 點校할 때 이를 참고하였다.

明 正統5년(1440년)에 熊宗立⁴²이 『類證注釋錢氏小兒方訣』을 刊行하였는데, 錢乙本을 다시 편집하고 최초로 注釋을 가한 책이다. 一卷에서 三卷까지는 錢乙本의 上卷에 해당하는데 81節을 39篇으로 并合하였고, 四卷은 錢乙本의 中卷에 해당하는데 원래 23例의 순서를 바꾸고 ‘王駙馬子’例를 추가하였으며 ‘睦親宮中十大王瘡疹’例는 빠져 있다. 五卷에서 八卷까지는 錢乙本의 下卷으로 총 117方은 같으나 當歸湯, 蛇黃圓이 없고 木瓜圓, 大黃圓을 추가하였으며 각 方劑의 적용증이 錢乙本보다 간략하게 되어 있다. 九卷과 十卷은 外篇이라 하였는데 錢乙本의 『閻氏小兒方論』이다. 熊宗立의 自序에서 “昔宋錢氏仲陽著小兒直訣, 世稱活幼之筌蹄, 全嬰之軌範, 當時門人傳寫本, 未免有造次錯簡之患, 後之讀是書者, 往往不無疑難, 予不揣凡陋, 已知僭妄, 竊以此書溯其源流, 類其證治, 要之支分節解, 脉絡貫通, 間附註以發明之.”라 하여 내용을 분석하여 脈絡을 연결하고 注를 달아 새롭게 發明하였다고 말하였다. 이 『類證注釋錢氏小兒方訣』을 日本寶曆13년(1763년)에 岡田隱安이 당시 明代에 간행되었던 薛己의 『薛氏醫案』 중 『校正錢氏小兒藥證直訣』과 樓英의 『醫學綱目』, 王肯堂的 『六科證治準繩』, 江權의 『名醫類案』 등을 참고로 校勘하고 그 내용을 간략하게 각 條마다 併記하여 新刻하였는데, 이를

40) 이 聚珍本은 『四庫全書』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전해오다가 周學海가 起秀堂本을 校勘할 때 참고하였으며, 惜陰軒에서 重刻하고 『叢書集成』에 수록되어 있다.

41) 第一冊의 卷975, 976, 978, 980, 1036, 1037과 第九冊의 卷981, 1033 등이다.

42) 熊宗立은 明代의 醫家로 字는 道軒, 號는 勿聽子이며 福建省 建陽 사람이다. 劉刻으로부터 醫卜術을 배웠고 여러 책을 편집 주석하였다. 『醫書大全』을 편집하고 『醫方大全』, 『增補本草歌訣』, 『山居便宜方』, 『備急海上方』, 『黃帝內經素問靈樞運氣音釋補遺』, 『傷寒運氣全書』 등을 지었으며 注釋書로는 『天元雪心二賦』, 『勿聽子俗解八十一難經』, 『類證注釋錢氏小兒方訣』 등이 있다.

謙龍軒刻本이라 하며 현재 『中國醫學大成績集』에 수록되어 있다⁴³⁾. 所謂宣和本 계열에 속하여 董汲의 『小兒斑疹備急方論』이 없고 劉跂의 「錢仲陽傳」도 빠져있다. 역시 張燦理, 郭君雙가 點校할 때 이를 참고하였다. 이 『類證注釋錢氏小兒方訣』은 明 萬曆29년(1601년)에 吳勉學⁴⁴⁾이 刊行한 『痘疹大全八種』⁴⁵⁾에 포함되기도 하였다.

1445년 朝鮮 世宗27년에 만들어진 『醫方類聚』⁴⁶⁾에도 『小兒藥證直訣』의 내용이 인용되어 있는데 楊守敬이 살펴보고 대부분 宋 初刊本の 문장이 들어간 것이라 하였으므로 『小兒藥證直訣』 校正에 중요한 자료이다.

明 萬曆年間(1573-1619)에 吳璫이 편집하여 刊行한 『薛氏醫案』 중에 薛己⁴⁷⁾가 校正하고 注釋한 『校注錢氏小兒藥證直訣』이 포함되어 있다. 薛己는 부친 薛鎰⁴⁸⁾와 함께 醫書 24種을 校正하고 注釋을 달았는데 이를 후학이 모아서 『薛氏醫案二十四種』으로 간행한 것이 바로 『薛氏醫案』이다.

『校注錢氏小兒藥證直訣』에는 각 條마다 ‘薛案’이라는 표기를 하고 자신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견해를 달아 놓았다. 이 薛己本은 所謂宣和本 계열에 속하는데 현재 『四庫全書』 중에 포함되어 있다. 「四庫全書目錄提要」에서 “如六味丸方, 本後漢張機金匱要略所載崔氏八味丸方, 乙以爲小兒純陽無煩益火, 除去肉桂附子二味, 以爲幼科補劑, 明薛己承用其方, 遂爲直補眞陰之聖藥, 其斟酌通變, 動契精微, 亦可以概見矣.”라 하여 薛己가 특히 六味丸을 眞陰을 直補하는 聖藥으로 여기고 임상에서 다양하게 응용하여 썼다고 전하고 있다. 薛己가 錢乙의 醫論과 處方을 임상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小兒藥證直訣』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게 되는데 후대에 周學海가 序에서 “至薛氏醫案本已爲薛氏所亂, 不足引證云.”이라 하여 이를 비판하기도 하였다.

1636년 淸이 건국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康熙年間(1662-1722)에 陳世傑이 宋復刻本을 照刻한 起秀堂本이 刊行되었다. 이 起秀堂本은 약 200년이 지난 淸末에 周學海가 찾아내어 없어진 閻孝忠의 序文을 補充하고⁴⁹⁾ 聚珍本과 對照 校勘하여 『周氏醫學叢書』에 수록하게 된다. 周學海의 序에서 “旋復於書肆, 得所爲仿宋刻者, 其次第頗異, 而後附有閻季忠小兒方董汲斑疹方各一卷, 夫當諸臣蒐採之日, 天

43) 기타 明 正德3년(1508년)에 刊行된 戊辰刻本, 明萬曆本, 明刻本, 明抄本 등이 있다.

44) 明代의 文人으로 字는 肖愚이며 당시의 歙縣(지금의 安徽省 歙縣) 사람이다. 의학에 관심이 많아 여러 醫書를 校刊 또는 輯刻하였다. 그 중 『古今醫統正脈全書』, 『河間六書』, 『痘疹大全八種』 등은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 외 『唐樂府』 등의 저서가 있다.

45) 宋 錢乙의 『類證注釋錢氏小兒方訣』, 宋 聞人規의 『痘疹論』, 宋 陳文中的의 『小兒痘疹方論』, 明 蔡維藩의 『痘疹方論』, 『陳蔡二先生合併痘疹方』, 明 魏直의 『博愛心鑑』, 작자 미상의 『痘疹寶鑑』, 明 郭子明의 『博集稀痘方論』 등 8種의 痘疹 전문서를 포괄하고 있다.

46) 世宗25년(1443년)부터 편집을 시작하여 世宗27년(1445년)에 총 365卷으로 완성한 醫論과 方藥의 類書이다. 筆寫本으로 전해지다가 成宗8년(1477년)에 30帙을 간행하였다.

47) 薛己(1486-1558)의 字는 新甫이고 號는 立齋이며 당시의 吳縣(지금의 江蘇省 蘇州) 사람이다.

48) 字는 良武이며 당시의 吳縣(지금의 江蘇省 蘇州) 사람이다. 弘治年間(1488-1505)에 太醫院醫를 지냈고 특히 兒科에 정통하여 『保嬰撮要』를 저술하였다.

49) 淸 張鈞衡의 『適園藏書志』에서는 陳世傑이 重刻하다 閻序를 잃어버린 것으로 보았다.

下藏書之家莫不爭獻祕笈，卒未得是書眞本，而今內復見於世，豈非古人精氣有不可磨滅者歟。”라 하여, 『四庫全書』 편찬 당시에 세상의 많은 藏書家들이 앞다퉀 秘笈을 바쳤으나 결국은 眞本을 얻지 못하다가 지금 書店에서 이 仿宋刻本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책 뒤에 董汲의 『小兒斑疹備急方論』이 붙어 있어서 宋復刊本임을 알 수 있다. 이 起秀堂本은, 周學海本 武英殿聚珍本 등과 함께 가장 宋本의 원형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小兒藥證直訣』의 初期 刊行本이다.

淸 乾隆39년(1774년)에 沈金鰲⁵⁰⁾가 『幼科釋謎』를 刊行하여 『沈氏尊生書』⁵¹⁾에 수록하였는데 여기에 錢乙의 論과 處方이 포함되어 있다. 전 六卷으로 앞의 四卷은 總論으로서 兒科의 診斷法을 논한 뒤 주요 病證을 二十四門으로 나누어 각 편을 四言韻語의 首로 총괄하였으며, 이 韻語 뒤에는 여러 醫家의 學術경험을 적어 각 病의 辨證治法을 설명하였다. 뒤의 二卷에는 處方을 수록하였다. 이 『幼科釋謎』에 수록된 錢乙의 論說과 處方은 앞으로 다른 傳本들과 비교하여 자세한 校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말한대로 乾隆46년(1781년)에 『四庫全書』를 편찬하면서 明代 『永樂大典』 안에 흩어져 있던 자료를 모아서 『小兒藥證直訣』 聚珍本이 만들어졌다. 이전 雍正3년(1725년)에 완성된 『欽定古今圖書集成』의 類書가 원문을 다 싣고 있지 않는데 대하여 乾隆帝가 1741년에 天下의 書를 수집한다는 詔를 내리고 1772년에 四庫全書館을 개설하여 1781년에 약8만권의 全書가 만들어졌다. 이 때 수집 정리된 책을 武英殿에서 목활자로 인쇄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武英殿聚珍本이다. 「四庫全書目錄提要」를 보면 “今從永樂大全內，掇拾排纂，得論證四十七條，醫案二十三條，方一百一十有四，各以類編仍爲三卷，又得閻季忠序一篇，劉跂所作錢仲陽傳一篇。”이라 하여, 錢乙書는 『永樂大典』에서 모으고 閻孝忠의 序와 劉跂의 「錢仲陽傳」은 따로 수집하여 얻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永樂大典』 중에는 閻序와 「錢仲陽傳」은 없었고 別本으로 世間에 流行했던 것으로 보인다. 약 100여년 후인 19세기 말에 周學海⁵²⁾가 聚珍本을 참고 하여 陳世傑의 起秀堂本을 校正할 때 이 閻孝忠의 序를 補入하였다. 周學海는 우연히 서점에서 起秀堂本을 발견하고 이것이 초기의 宋復刊本으로 판단하여 底本으로 삼고, 여기에 역시 당시에 宋本의 내용을 담고 있던 聚珍本을 가지고 校勘하여 가장 정확한 板本을 復刻해 내었다. 周學海는 聚珍本 중에서 閻孝忠의 方論이 錢乙의 書로 잘못 들어간 부분을 밝혔고 聚珍本과 方劑 구성과 용량이 다른 부분에 대하여 ‘學海案’이라 표기하고 기록하였다. 또한 卷三의 뒷부분에 附方을 붙여 놓았는데 起秀堂本에는 있으나 聚珍本에는 없는 26개 處方의 목록을 밝혔고, 반대로 聚珍本에 추가된 20개의 처방 중 閻氏方 속에서 발견된 5개를 제외한 15개 處方의 出處는 알 수 없다고

50) 沈金鰲(1717-1767)는 淸의 醫家로 字는 芋綠이고 號는 汲門이며 江蘇省 無陽 사람이다.

51) 『脈象統類』, 『諸脈主病詩』, 『雜病源流犀燭』, 『傷寒論綱目』, 『婦科玉尺』, 『幼科釋謎』, 『要藥分劑』 등의 7種이 수록되어 있다.

52) 周學海(1856-1906)는 淸代의 醫家로 字는 澄之이며 安徽 建德사람이다. 일찍이 進士科에 급제하였고 후에 벼슬이 浙江后 補道에 이르렀으며 張璐와 葉桂의 學설을 추종하였다.

적었다. 周學海는 校勘한 起秀堂本을 光緒17년(1891년)에 復刻하여서 『周氏醫學叢書』⁵³⁾에 포함시켰고 1955년에 人民衛生出版社에서 다시 影印 出刊하였다.

周學海는 楊守敬⁵⁴⁾이 周學海本보다 수 년 앞선 1884년경에 日本 善本古書 중에서 찾아 『日本訪書志』⁵⁵⁾에 수록한 『錢氏小兒藥證直訣』은 참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楊守敬은 이 책을 宋 劉昉의 『幼幼新書』, 『醫方類聚』 등과 비교하여 宣和本 즉 初刊本이라고 考證하였다. 이보다 앞서 光緒5년(1879년)에는 米子榛이 『保赤滙編』이란 叢書⁵⁶⁾를 刊行하였는데 여기에 『小兒藥證直訣』이 포함되어 있다. 근세에는 中華民國12년(1922년)에 張壽頤⁵⁷⁾가 『小兒藥證直訣箋正』을 지었는데⁵⁸⁾ 각條마다 ‘箋正’이라는 표기를 하고 자신의 注釋을 附加하여 놓았다. 箋正의 내용은 자신의 독특한 주장을 피력하였으나 한편 당시의 서양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지나치게 牽強附會한 면이 없지 않다. 이 『小兒藥證直訣箋正』 중에서 二十三則의 醫案을 뽑아 張山雷의 箋正을 疎로 하고 何光華가 補注한 것을 參으로 하여 中華民國22년(1932년)에 上海 大東書局에서 『錢氏兒科案疏』란 이름으로 간행되기도 하였다.

Ⅲ. 結論

宋 錢乙의 著作인 『小兒藥證直訣』의 傳本 및 주요 引用書에 대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錢乙의 生沒年代는 北宋 天聖10년(1032년)에 태어나서 政和3년(1113년)에 82세의 나이로 生을 마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宣和元年인 1119년에 沒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小兒藥證直訣』의 명칭은 『四庫全書』 편찬시에 『小兒藥證眞訣』로 보았으나 여러 傳本과 인용서를 살펴본 결과 『小兒藥證直訣』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小兒藥證直訣』을 편집한 閻孝忠의 이름도 여러 書志에 閻季忠으로 되어 있어 四庫館과 周學海는 閻季忠으로 보았으나 『宋史·藝文志』 등에 본래의 閻孝忠으

53) 周學海가 편찬하여 1891년부터 1911년까지 刊行한 叢書. 모두 3集 32種이며 初集은 周學海가 校正 刊行한 것으로 『小兒藥證直訣』을 포함한 12種이며, 2集과 3集은 자신이 著作했거나 評論한 것으로 20種이며 『脈義簡摩』, 『脈簡補義』, 『診家直訣』, 『讀醫隨筆』 등이 포함되어 있다.

54) 楊守敬(1839-1915)은 清末과 民國初의 학자, 서예가로 字는 惺吾, 호는 鄰蘇老人이며 호북성 宜都 사람이다.

55) 楊守敬은 1880년 淸國出使大臣 何如璋의 초청으로 日本으로 건너가 5년간 北派의 書法을 전하는 한편 中國에는 없어지고 日本에만 전하는 善本古書를 수집하여 目錄과 설명을 붙인 『日本訪書志』 十六卷을 지었으며 古書 중 26種을 復刻하여 『古逸叢書』 四十九冊을 1884년에 간행하였다.

56) 『錫麟寶訓』, 『達生篇』, 『產寶』, 『福幼編』, 『保嬰易知錄』, 『小兒藥證直訣』, 『童蒙訓』 등 7種의 서적이 포함되어 있다.

57) 張壽頤(1873-1934)는 清末에서 中華民國 시대의 의학자로 字는 山雷이며 江蘇省 嘉定 사람이다. 中風에 대하여 많이 연구하여 『中風辨證』을 지었으며 『難經滙注箋正』, 『生理新義』, 『婦科輯要箋正』 등의 저작이 있다.

58) 民國51年(1961년)에 臺北 宇宙醫藥出版社 發行으로 출판되었다.

로 되어 있으므로 이것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

2. 『小兒藥證直訣』이 初刊될 때 閻孝忠의 『閻氏小兒方論』一卷과 劉跂의 「錢仲陽傳」一篇이 붙어 있었고, 곧이어 再刊될 때에는 董汲의 『小兒斑疹備急方論』一卷과 方論 마지막에 錢乙이 써준 後序가 포함되었다. 이 중 宋復刊本은 淸 康熙58년(1719년)에 陳世傑이 影刻한 起秀堂本이 남아 있으며, 初刊本은 楊守敬이 日本에서 수집하여 『日本訪書志』에 수록하였는데 이를 所謂宣和本이라 한다.

3. 楊守敬의 所謂宣和本 체계를 따르는 것은 熊宗立의 『類證注釋錢氏小兒方訣』, 薛己의 『校正錢氏小兒藥證直訣』, 武英殿聚珍本 등이 있고, 劉昉의 『幼幼新書』와 朝鮮 『醫方類聚』에서 『小兒藥證直訣』을 인용한 부분도 이를 따르고 있다. 반면에 陳世傑의 起秀堂本과 復刻한 周學海本 등은 宋復刊本 계열에 해당한다

4. 『小兒藥證直訣』의 주요 傳本 및 引用書로는, 宋代에 劉昉의 『幼幼新書』, 『小兒衛生總微論方』 등이 引用하였고, 明代에는 『永樂大典』 중 『小兒藥證直訣』 관련 부분, 熊宗立이 再編集하고 注釋한 『類證注釋錢氏小兒方訣』, 薛己가 校正하고 注釋한 『校注錢氏小兒藥證直訣』, 『醫方類聚』의 引用 부분 등이 있으며, 清代에는 陳世傑이 宋復刻本을 照刻한 起秀堂本과 이를 校勘하여 復刻한 周學海本, 『四庫全書』 편찬시 『永樂大典』에서 輯錄한 武英殿聚珍本, 楊守敬이 『日本訪書志』에 수록한 『錢氏小兒藥證直訣』, 張壽頤가 注釋한 『小兒藥證直訣箋正』 등과 錢乙의 論과 處方을 인용한 沈金鰲의 『幼科釋謎』 등이 있다.

V. 參考文獻

1. 丹波元胤：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2. 明清名醫全書大成叢書編委會：周學海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3. 北京中醫學院主編：中醫各家學說講義. 北京, 醫藥衛生出版社, 1978
4. 上海中醫學院各家學說教研室 裘沛然主編：中醫歷代各家學說.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
5. 薛己：薛氏醫案, 欽定四庫全書醫家類卷32., 서울, 대성문화사, 1995
6. 成都中醫學院 郭子光主編：中醫各家學說. 貴州省, 貴州人民出版社, 1988
7. 沈金鰲：幼科釋謎, 中國醫學大成續編10冊. 湖南省, 岳麓書社, 1992
8. 熊宗立：類證錢氏小兒方訣, 中國醫學大成續集38.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9. 劉昉：幼幼新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10. 李雲 主編：中醫人名辭典. 北京, 國際文化出版公司, 1988
11. 著者 未詳, 吳康健 點校者：小兒衛生總微論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12. 錢乙著, 閻孝忠編集, 張燦琿, 郭君雙點校: 小兒藥證直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13. 錢乙著, 閻孝忠編次, 趙安民, 鄧少偉注釋: 小兒藥證直訣.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8
14. 錢乙著, 王萍芬, 張克林點注: 小兒藥證直訣. 江蘇省,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15. 錢乙著, 張山雷 箋正: 小兒藥證直訣. 臺北, 宇宙醫藥出版社, 民國51年
16. 錢乙著, 張山雷疏注, 何光華補注: 錢氏小兒科案疏. 上海, 上海三聯書店,